

■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주요 쟁점-(중) 자치재정권 강화

국세이양·제주계정 3% 명문화 등 포함 추진

지역간 균형 발전위한 '제주계정' 매년 감소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공염불' 그칠 우려도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포르투갈 마데이라(Madeira) 자치정부를 벤치마킹했다.

지난 1976년 포르투갈 헌법 제정 시 자치권을 확보한 마데이라 자치정부는 대서양 서남부에 있는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으로부터 약 1000km, 아프리카 북부 모로코 앞바다 약 70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본섬인 마데이라를 포함해 모두 4개(Maderia, Porto Santo, Ilbas, Desertas)의 화산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마데이라의 총 면적은 742.5km², 인구는 25만명이다. 면적만을 비교할 경우 제주도의 1/3 정도이다.

마데이라는 포르투갈 헌법과 '마데이라-아조레스 정치·행정적 지위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치특례를 보장받고 있다. 국방과 외교·세관·치안·사법·국가 기본사항(교육·의료) 5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자체적으로 입법하고 집행하고 있다.

마데이라는 지난 1991년 포르투갈 18개주 가운데 1인당 GDP가 최하위 수준이었으나 2002년엔 수도 리스본에 이어 두번째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했다.

이런 마데이라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마데이라의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포르투갈 본토보다 30% 낮춰 줬다. 특별행

정기관(외교·국방·사법·세관)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마데이라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나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균등' 규모 대비 제주계정의 비중을 보면 2007년에는 3476억원으로 전체 균등 예산의 5.12%를 차지했지만 이후 2021년엔 2403억원(2.32%)으로 줄었다.

특별행정기관 제주이관 후 정부 지원 특별행정기관 운영비는 2012년 1869억원에서 2020년 1119억원으로 연평균 3.2%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조원에 달하는 지방비가 투입됐다.

올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금은 증가했으나 제주자치도

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1조4906억원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TF는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이양과 제주계정 3% 명문화, 소방안전교부서 1% 추가교부, 도내 교통법칙규·과태료 도 재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도내 면세점 이익의 사회적 환원 강화(전년도 총 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징수근거 마련 등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1국2조세체제 불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한 바 있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제주도의 자치재정권 강화는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대르기자



20일 개막한 '호근동 마을 어르신들의 타임 슬립 사진전'을 찾은 지역주민들.

'내 고향 꽃 피는 호근' 사진에 담다
정착민 도움으로 어르신들의 타임 슬립 사진전
마을길 '에밀타케로드' 명명... 벚꽃축제도 계획

가슴 따뜻한 사진전이 서귀포시 남쪽에 위치한 호근동에서 열려 봄기운을 전한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호근'의 주제로 마련한 사진전은 마을에 정착한 예술가들의 재능기부가 보태지며 그 의미 또한 깊다.

지난 20일 카페이자 문화공간인 티그래퍼×무빙아트센터에서 개막한 '호근동 마을 어르신들의 타임 슬립 사진전'.

호근동마을회 주최,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 주관에 사진관 '자연의 연필' 이규호 작가가 재능 기부해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맡았다. 흥민진 카페 대표가 전시공간을 지원하며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작가와의 인터뷰에서 "호근리에서 나고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다섯을 키우며 산지 어인 80년이 됐다"는 현행량·오신춘 어르신. "마을 바닷가인) 속골에 가서 머느리하고 그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나"는 김영자 어르신. "좋아하는 꽃을 들여다 볼 여력도 없이 잘도 살았다"는 양순정 어르신. "호근리는 변하지 않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텐데. 그렇게 되겠지"라는 현익준·임순자 어르신 등등.

모델로 나선 어르신 10명의 이야기 애잔하다. 예전에 살던 집 대문을 배경으로 하고, 발일을 마치고 마당에 앉아 파를 다듬는 모습도 앵글에 담겨 정겹다. 옛날 짙은 빛바랜 사진까지 함께 걸려 그 푸근함을 배가 된다.

현상봉 호근동생태관광협의체 위원장은 "마을에 정착한 사진작가와 기획연출가의 재능 기부 및 공간 지원으로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이 공간으로 모실 계획이고, 전시회는 마을길에 벚꽃이 만개할 3월까지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왕벚나무를 세계에 알린 에밀타케신부가 거주했던 호근동 마을에 가로수로 심어진 벚꽃길 2.5km를 '에밀타케로드'로 이름 짓고 올해 처음으로 꽃축제를 열 계획도 밝혔다.

흥민진 대표는 "전시는 물론 국제 환경예술심포지엄 개최 등 복합공간으로 카페를 활용하고,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함께 찾는 문화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사진전뿐만 아니라 나인드레곤해드와 같이 창작 공동체나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가들의 작품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노인가구 방문 한의진료
서귀포시-서귀포시한의사회

서귀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행복한 한의진료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한의사회(회장 강준혁)의 도움을 받아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소득과 무관하며 ▷요양병원 장기입원(최근 1년 이내 181일 이상 입원 환자) 후 퇴원 노인 ▷단기입원(골절, 뇌질환) 후 퇴원 노인 ▷노인복지 시설 퇴소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 노인 ▷신규 등록 장애인노인(독거 및 노인 부부) ▷75세 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 등 6개 유형이다.

서귀포시한의사회는 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해 연간 8회에 걸쳐 건강상담, 진맥, 침, 뜸, 부항, 한방약제 등 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은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서귀포시 소재 한의원 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 67명에 대한 한의서비스를 지원했다. 백금탁기자



한덕해안산책로 찾은 관광객들 23일 제주시 한덕해안산책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예산 확보 '난항'
2023년 완공 목표... 서귀포시 "도비 확보에 총력"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도비 160억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귀포시민회관을 대체하는 주민숙원사업인 센터 건립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 차원에서 건축재정으로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22일 서귀포시청에서

이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축설계당선작으로 지인건축과 이즈건축의 공동 제출작이 선정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설계안 디자인, 세부공간 구성, 시설 간 동선계획, 부지활용 등 용역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들 간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안 등 의견이 교환됐다.

이 사업은 동홍동 부지에 연면적 6409㎡, 지하 2층·지상 3층에 공사비 217억원이 투입된다. 공연장(230석), 전시실, 수영장(25m 6레인), 다목적 강당(배드민턴장 6면), 체력단련실 등이 조성되는 시설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총사업비 3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도비 160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토지매입비 76억원과 설계비 11억5000만원, 국비 49억원, 도비 9억원 등은 확보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서귀포시, 대학 입학금 지원

서귀포시가 저소득(4인 기준 소득 292만5000원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금 4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급여 신청일이 오는 3월 말 이전인 한부모가족 자녀 가운데 대학교 신입생이며, 한

부모가족 보장 기간 중 단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입생 자녀 입학금은 자녀당 100만원이며 앞서 시는 지난해 35명에게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3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페르카 효과

-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 연작장애 토양 속도 살균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NAVER D.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히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생산성 증대

뿌리 발달, 당도 향상, 신진대사 촉진, 내병성 강화, 광합성 촉진, 종미개선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히토류	원료명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원료명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원료명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벤토나이트	원료명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원료명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원료명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원료명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히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차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